

한류팬 사상 첫 1억명 돌파... '보편성의 힘'

〈지난해 9월 기준 1억477만7808명〉

'기생충' 양극화 주제 전세계 공감 다양한 플랫폼도 한류 성장 요인

전 세계 한류 팬이 사상 처음 1억명을 넘어섰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한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기생충'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열기를 이끈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해 한류 열기가 재점화한 일본에서는 이를 관통하는 요인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계 분석과 일본 언론의 시각이 서로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끈다.

●지구촌 아우르는 한류...보편성의 힘

14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내놓은 '2020 지구촌 한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한류 팬은 1억477만7808명으로, 사상 처음 1억명을 넘

겼다. 2019년 9932만여명보다 545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통계는 전 세계 98개국의 한류 동호회(1835개)와 회원 현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회원이 아닌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팬이 더 많다는 예기다.

보고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 콘텐츠가 입증한 '언어적 한계의 극복 가능성'에서 요인을 찾았다. 최근 일본 최대 출판기업 고단샤의 경제지 '현대비즈니스'는 이를 한류 콘텐츠가 지닌 보편성의 힘이라고 썼다. 매체는 '기생충'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라는 "한국공통의 주제"로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한류 열기를 이끈 '사랑의 불시착'도 "순애보, 유대감, 권선징악 등 동서고금에 사랑받는 보편적 주제였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시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라
한국영화와 드라마, 케이팝 등은 일찌감치 세계시장을 겨냥해왔다. '현대비즈니스'는 '기생충'의 CJ엔터테인먼트 등 한국영화계와 드라마업계가 '해외 네트워크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유능한 제작진과 호화 캐스팅에 성공'한 사례를 들며 전략적이고 치밀한 준비로 글로벌 시장을 노려왔다고 봤다.

감염병 시대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환경은 이에 힘을 더했다. '2020 지구촌 한류 현황'은 ▲다양한 플랫폼 및 채널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략적 동호회 활동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미디어 기술로 구현한 세계 최초 유료 온택트(온라인 비대면) 콘서트를 한류 열기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비즈니스'는 BTS가 지난해 펼친 '방방콘 더 라이브'(BANG BANG

CON The Live)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감염병 확산 여파 속에서 가수와 팬덤이 디지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소통이라는 설명이다. 또 "BTS는 7년 동안 SNS를 통한 팬들과 교류에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한류 팬덤이 BTS의 노랫말을 "번역"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그에 대한 세계의 다양한 반응을 유튜브 등을 통해 표출하는 "리액션"과 동시에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커버댄스"의 활동이 흐름을 주도했다는 '2020 지구촌 한류 현황' 보고서의 시선과도 같다.

시선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뉴노멀'의 시대에 한류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현대비즈니스)을 통해 "높은 완성도로 글로벌 플랫폼에서 선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선순환"(2020 지구촌 한류 현황)시켜야 한다는 과제에 이어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다시 불 붙는 '버닝썬' 논란



'버닝썬'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소녀시대 효연에게 공개 증언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 | 김상교 SNS

"마약에 취한 여배우 누구였나" 김상교 씨, 효연에 증언 요구

(최초 제보자)

2019년 그룹 비행 출신 승리가 연루돼 사회적 파문을 몰고 왔던 '버닝썬'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승리의 군 입대와 관련자들에게 대한 잇단 형사처벌 등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관련 최초 제보자가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18년 승리가 사외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범죄, 운영진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연예계 안팎에 파문이 일었다.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김상교 씨가 14일 SNS를 통해 소녀시대 출신 효연의 실명을 언급하며 관련 증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씨는 2018년 11월 버닝썬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유착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효연이 2018년 11월24일 버닝썬에서 디제잉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그날 마약에 취한 여배우가 누구였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어 "버닝썬 관련 연예인 수십명인 거 언젠가 밝혀질 건지 아니면 제대로 불건지 너희들 선택"이라고도 썼다. 당시 효연은 'DJ 효'(DJ HYO)라는 이름의 솔로가수로 신곡 활동을 펼치던 중 버닝썬에서 디제잉했다. 김 씨의 공개 요구에 효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섭외 요청을 받고 공연했을 뿐 해당 글과 무관하다"며 "억측과 오해를 삼가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이날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에 대한 7차 군사재판에서 군 검찰이 혐의를 공개했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식품위생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3월 입대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자신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 등에게 이를 알려 폭력조직배가 피해자들을 위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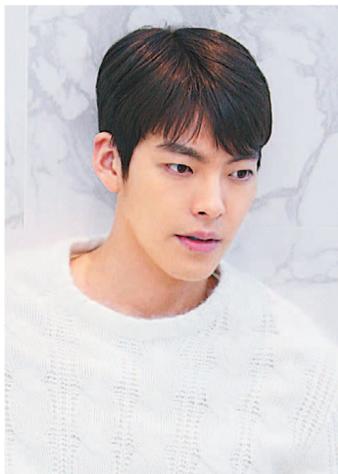
김우빈·강하늘·김태리 "반갑다 스크린"

암 완치 김우빈, '외계인'으로 5년만의 복귀 '해적' 강하늘 4년... '승리호' 김태리는 3년만

'젊은 그들'이 온다. 짧지 않은 공백기를 거치며 새로운 활동의 기세를 다진 30대 초반의 젊은 연기자들이 잇따라 스크린에 나선다. 각기 실력과 재능으로 화제를 모은 전작의 바탕 위에서 2021년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연기자들이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연기자는 김우빈(32)이다. 투병의 고통을 딛고 올해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인'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 2016년 흥행작 '마스터' 이후 5년 만이다. 그는 2017년 5월 인두 뒷부분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서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 왔다. 연기 활동을 잠시 쉬 수밖에 없었다. 완치를 향해 달려가며 '외계인'의 카메라 앞에 서서 투혼을 발휘했다. 결국 최근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김우빈과 동갑내기인 강하늘도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2017년 화제작 '청년경찰'과 '기억의 밤'의 주연이었던 그는 올해 '해적: 도깨비 깃발'을 영화 복귀작으로 택했다. 최근 촬영을 마친 데 이어 신작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도 주연한다. 앞서 2017년 9월 입대해 복무한 뒤 2019년 5월



'스타파워 3인방의 컴백' 김우빈, 강하늘, 김태리(왼쪽부터)가 스크린의 긴 공백을 깨고 관객과 만난다.



제대하고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으로 안방극장에 먼저 컴백했다. 공효진과 함께 드라마로 화제를 이끌어내며 더욱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김태리(31)는 두 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2월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는 '승리호'에서 우주로 향한 다. 2029년 우주 청소선 승리호 선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주해적단 출신 리더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이후 '외계인'이 되어 다시 한번 스크린에서 날아오른다.

김태리의 영화는 2018년 2월 '리를 포레스트' 이후 딱 3년 만이다. 특히 그는 든든한 스타급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선보이게 돼 눈길을 끈다. '승리호'에는 송중기·유해진 등과 동승하고, '외계인'에서는 김우빈·류준열 등과 이야기를 펼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자본공유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우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계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민 목사 010-4277-0691
- 법무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정경장 010-7653-5373 / 이주지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황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상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수원인 010-4741-7008

● 인천 조현호 010-7374-4111 / 서재은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영현 010-3742-5998 / 전남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9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강원 이일범 010-3572-4616 / 이승원 010-5769-0532 ● 전남 김해덕 010-6258-3510 / 우영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호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희준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찬성 010-4707-2659

● 천안 김희희 010-5177-9479 ● 여주 황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황인희 010-3435-0159 / 반우영 010-5221-8119 / 김원내 010-9005-3616

● 경기 남부 황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필 010-5463-6952 ● 중국 송봉숙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해외이윤이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lubuntu 1644-6733